

책 표지 색채의 주제별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re-Based Differences in Book Cover Colors

권 선 영 (Sun Young Kwon)**

이 혜 경 (Hyekyung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 분석 결과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출판 시장에서 주제별 도서 표지 색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기반으로 4,645권의 도서 표지 이미지를 수집하고, Python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색상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후 기술통계, Welch의 분산분석,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주제 간 색채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도서 표지는 빨강 주황 계열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색상 경향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리' 주제는 주황 계열 색상이 두드러졌고, 실용 및 수험서 주제는 무채색 비중이 높은 반면, 문학 및 아동 주제는 따뜻한 색상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표지 색채가 주제의 특성을 전달하는 시각적 정보 단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genre-based differences in book cover colors in the Korean publishing market. Book cover images of 4,645 titles were collected from bestseller lists of a major Korean bookstore from 2014 to 2024. Color features (Hue, Saturation, Value) were extracted using Python-based image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Welch's ANOVA, and cluster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most book covers are concentrated around the red or orange color range, while color tendencies vary significantly across genres. The cooking genre shows a distinctive orange-dominant pattern, whereas practical and exam-preparation genres tend to use a higher proportion of achromatic colors. In contrast, literary and children's books frequently employ warmer colors such as red and oran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ok cover colors function as visual cues that convey genre characteristics.

키워드: 책표지디자인, 색채 분석, 주제 특성, 시각적 메타데이터

Book Cover Design, Color Analysis, Genre Characteristics, Visual Metadata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ykw@hnu.kr / ISNI 0000 0004 6853 6987)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eilee@hnu.kr / ISNI 0000 0004 9360 1074)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5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409-428,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409>

© Copyright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서점의 베스트셀러 진열대만 보아도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된다. 표지의 색채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제 범주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색채의 선택은 단순한 '디자인 감각'의 차이가 아니라, 출판 시장이 독자의 시선을 해석하고, 그 기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책 표지는 독자에게 도서의 첫인상을 전달하는 시각적 매개체로서, 출판물의 주제와 성격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표지는 단순히 외형적 장식이 아니라, 독자가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주제를 인식하는 하나의 정보 단서(informational cue)로 작동한다. 특히 색채는 표지 디자인의 가장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로서, 독자의 인식, 감정,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색채는 주제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의 감성적 반응과 연상 작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호이기도 하다(Feisner, 2006; Hurlbert & Ling, 2007).

출판 시장에서는 도서의 장르나 주제에 따라 색채 사용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도서는 밝고 채도가 높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주로 활용하여 친근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반면, 추리·스릴러 주제는 어두운 배경과 강한 대비 색을 통해 긴장감과 몰입감을 조성한다. 또한 자기계발서와 경제경영서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채를 통해 전문성과 활력, 실용적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미학적 선택을 넘어, 주제별 색채 코드(color code)가 출판 디자인의 시각적 언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Kulishova & Sajek, 2025; Sare, 2025; Rusanen, 2024; Feisner, 2006). 즉, 색채는 텍스트의 내용보다 먼저 인지되는 시각적 정보로서, 독자에게 주제를 암시하고 특정 책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비언어적 기호로 작용한다(Kress & van Leeuwen, 2002).

이러한 색채 사용은 비단 장르 및 주제적 구분에 그치지 않고, 독자의 심리적 반응과 선택 행동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색채는 정보 인식의 명료성을 높이고 시각적 주목도를 증가시켜, 도서 선택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Feisner, 2006). 또한 색채와 도서 표지의 시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표지의 색 대비, 채도, 감성적 인상이 첫인상 형성과 브랜드 연상 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Liang et al., 2024; Liu et al., 2025; Park et al., 2023). 이는 색채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책의 성격과 내용을 전달하고 독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비언어적 설득 수단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소수의 주제나 제한된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Sare(2025)는 퀴어 로맨스 주제의 표지를 중심으로 색채 대비와 시각적 접근성을 분석하였으나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출판 시장에서의 주제별 색채 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Rusanen(2024)은 북스타그램 사용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로맨스 주제의

표지 색채를 분석했으나, 이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정성적 해석에 가까워 출판물 전반의 디자인 경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Kulishova와 Sajek(2025)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책 표지를 자동 분석 및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서 표지를 계산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사례 연구나 문화적 맥락에 집중되어 있어, 출판 시장 전반에서 사용되는 표지 색채의 주제적 차이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주제의 베스트셀러 표지를 대상으로 색채 사용의 경향성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출판 디자인에서 색채가 주제 구분의 시각적 언어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최근 디지털 이미지 분석 기술의 발전은 대규모 시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도서 표지의 색채 정보를 정량화하고, 주제별로 표지 이미지의 채도·명도·색상 분포를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주관적 평가를 넘어, 출판 디자인의 시각 언어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출판 산업에서도 주제 세분화와 시각적 마케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점 플랫폼(예: 교보문고, YES24)이 제공하는 디지털 표지 데이터는 풍부한 연구 자원이 되고 있다. 동시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시각 정보를 정보 탐색 및 메타데이터 확장의 관점에서 재조명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책 표지 색채를 시각적 메타데이터(visual metadata)로 간주한다면, 색채는 이용자의 주제 인식과 정보 접근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전시, 추천 시스템, 디지털 컬렉션 시각화 등 정보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베스트셀러 도서를 대상으로, 주제별 도서 표지 색채의 특성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기반으로 수집한 도서 표지 데이터 중 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4,645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표지에 나타난 색상 및 무채색 정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 색상 사용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베스트셀러 도서 표지에서 주제별 색채 사용의 정량적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둘째, 각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색상과 무채색 활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도서 표지 색채가 주제의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밝히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색채 정보를 시각적 메타데이터(visual metadata)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도서 추천, 정보 탐색, 전시 및 디지털 컬렉션 구성 등 정보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은 책 표지 색채를 단순한 미학적 요소가 아니라, 주제 인식을 지원하는 분석 가능한 시각 데이터로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책 표지는 독자에게 책의 첫인상을 전달하는 시각적 매개체로서, 출판물의 내용, 성격, 주제적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환경 모두에서 표지는 구매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출판물이 경쟁적인 시장 내에서 시각적으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간주된다(Hurlbert & Ling, 2007; Kress & van Leeuwen, 2002).

이 중 '색채(color)'는 표지 디자인의 가장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구성요소로, 심리적 연상 작용을 유도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며, 책의 주제와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비언어적 기호로 작용한다(Feisner, 2006; Donato & Adigüzel, 2025). 색채는 텍스트보다 먼저 시각적으로 인식되며, 특정 색은 특정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출판물의 정체성과 주제를 시각적으로 암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기존의 도서 표지 디자인 연구는 특정 주제에 한정되거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 색채 사용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서 표지 색채가 실제로 주제 구분에 활용 가능한 시각적 특징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도서 표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주제별 색채 코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의 도서 표지 디자인

연구는 압도적으로 '문학/소설'이라는 단일 주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안도선(2001)은 1990년대 문학 베스트셀러를 대상으로 표지 디자인의 '조형적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박유나(2009)는 국내소설 표지의 '시각적 요소'를 유형화하고 그 활용 패턴을 정리하였다. 박선영(2010) 역시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문학 베스트셀러를 분석하여 표지 디자인의 '트렌드' 변화와 시기별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문학 주제 내에서의 시각적 구성요소의 의미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나, 주제 간 색채 사용의 차이나 색채가 주제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주제 비교를 시도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였는데, 이화진(2001)은 출판 '분야별' 디자인 조형을 비교 분석하여 각 주제의 시각적 특성화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는 색채 자체보다는 조형 요소 전반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석 대상도 1990년대 말로 한정되어 현시점의 경향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독자의 '선호도'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남미현과 백진경(2004)은 문학도서 표지 디자인에서 시각적 요소가 독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타일 서체와 한색 계열(cool color)이 높은 선호를 받는 등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선호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색채와 주제 간의 상관관계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분석 대상이 단일 주제(문학)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국의 연구들은 책 표지 디자인에서 색채(color)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크게 '주제 인식'(Jonaukaitė, 2024; Rusanen, 2024), '시각적 커뮤니케이션'(Kress & van Leeuwen, 2002; Sare, 2025), '감정 반응'(Donato & Adıgüzel, 2025; Liu et al., 2025), '시장 전략'(Leenstra, 2023; Tuan, 2025) 등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제 인식' 측면에서는, 색채가 특정 주제에 대한 정서적 기대나 연상을 유도하며, 독자가 색을 통해 책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Jonaukaitė(2024)는 색상과 감정 간의 연관성을 30개국 이상에서 실험적으로 조사하며, 특정 색이 특정한 정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색채가 주제적 감정 기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usanen(2024)은 핀란드 북스타그래머들이 다룬 로맨스 주제 표지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밝은 톤의 따뜻한 색상 계열이 주제 선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는 색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나의 언어 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Kress와 van Leeuwen(2002)은 색채를 시각 언어의 핵심 구성요소로 규정하며, 시각적 문법(image grammar) 속에서 색이 사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주목한 바 있다. Sare(2025)는 디지털 환경에서 섬네일로 소비되는 전자책 표지를 분석하며, 색채 대비와 접근성이 주제 인식 및 정보 해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정 반응'을 다룬 연구에서는 색채가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과 구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Donato와 Adıgüzel

(2025)은 라벨 색상 구성(color scheme)이 소비자의 신뢰도와 긍정적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 시각적 정보가 설득적 기호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책 표지 색채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Liu et al.(2025)은 패키징 디자인의 다양한 시각 요소(색, 구조, 질감 등)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리뷰 논문을 통해, 색채가 제품의 감성적 인식과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시장 전략 및 브랜드 일관성' 관점에서는 출판 시장 내에서 색채가 특정 주제나 시리즈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브랜드화를 위한 시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강조된다. Leenstra(2023)는 2011년과 2021년에 출간된 여성 대중소설(romance/women's fiction) 표지를 비교하며, 밝고 채도가 높은 색상과 특정 서체 스타일이 독자에게 주제적 기대를 암시하는 데 사용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Tuan(2025)은 베트남에서 번역된 여성소설 표지를 대상으로, 색채와 타이포그래피가 원작의 문화적 코드와 정체성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번역하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생성형 AI 도구의 급부상과 더불어 진행된 연구로, Kulishova와 Sajek(2025)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Kulishova와 Sajek(2025)은 기계학습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책 표지의 색채, 타이포, 시각 배치 등 디자인 구성요소를 자동 분류하고 주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색채가 알고리즘 수준에서도 주제 인식에 유의미한 지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책 표지 디자인에서 색채가 단순한 미적 장치를 넘어, 비언어적 주제 정보의 전달, 감정 반응의 유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장 차별화와 브랜드 정체성 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의 초기 연구들은 ‘문학’이라는 단일 주제에 집중하거나(안도선, 2001; 박유나, 2009), ‘조형’이나 ‘독자 선호도’ 등 포괄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데 주로 머물렀다(이화진, 2001; 남미현, 백진경, 2004). 최근 국외의 연구들도 AI를 활용한 주제 자동 예측(Kulishova & Sajek, 2025),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Sare, 2025), 특정 주제의 표지 선호도(Rusanen, 2024) 등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소수의 주제나 제한된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가 있다. 즉, 국내 출판 시장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도서 표지 색채의 경향성과 차이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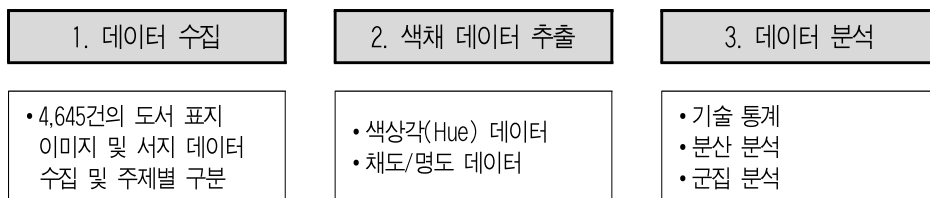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내 베스트셀러 4,645권을 대상으로 주제별 표지 색채의 정량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색채를 문헌정보학 관점에서의 ‘시각적 메타데이터(visual metadata)’로 재해석하고, 도서관 추천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주제별 색채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한 연구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전체 연구는 크게 첫째, 데이터 수집, 둘째, 색채 데이터 추출, 셋째 색채 데이터 분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국내 대규모 서점에서 제공하는 도서 서지 데이터와 표지 이미지를 수집하는 단계로 주제별 구분과 중복 데이터처리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이후 두 번째 색채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도서 표지 이미지에서 색상각, 채도, 명도 값을 추출하여 정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색채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추출된 수치를 기반으로 주제별 색채 특성과 주제 간 색채 차이를 규명하고, 각 주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색상 구성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1 데이터 수집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에서는 국내 출판 도서의 표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최대 서점 사이트의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베스트셀러 목록



<그림 1> 연구 절차 개요

에서 주제 구분에 따른 연도별 상위 30위까지의 도서를 대상으로 표지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베스트셀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선택된 도서라는 점에서, 표지 색채의 대중적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도서 표지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거나, 도서 구매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표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 도서 판매 사이트인 K 문고가 제공하는 도서 표지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K 문고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주제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주제는 총 24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애니메이션, 어린이 만화 등 일부 주제에서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지 이미지를 유지한 시리즈물이 연속적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목록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될 경우, 특정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반영되어 주제별 색채 분석에 통계적 편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제들을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K 문고의 주제 분류 체계에서 청소년 분야는 2020년까지 독립된 주제로 구분되지 않고, 기존 주제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 별도의 세분화된 독립 주제로 신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 분야에 한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표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주제의 독립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K 문고는 각 도서의 ISBN을 상품 코드로 사용하고, 상품별로 고유 ID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 표지 이미지는 상품 코드를 포함한 일정한 URL 구조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해당 URL에는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458픽셀로 조정하는 기준이 지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미지 제공 방식에 기반하여 Python을 활용한 자동 수집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가로 458픽셀 기준으로 제공되는 표지 이미지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렇게 최초 단계에서 총 7,399권의 도서에 대한 서지 정보와 도서 표지 이미지를 확보하였으며, 연도별 수집 건수는 주제별로 최대 30건, 최소 12건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도서 표지 이미지를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일 표지 이미지의 중복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도서명이 같더라도 판차(개정판, 증보판 등)에 따라 표지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K 문고의 주제 분류상 '소설'과 별도로 '한국소설', '외국소설'이 구분되어 있어 동일 도서가 복수의 주제에 중복 포함되는 사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스테디셀러는 여러 연도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주제 구분에 동일 도서가 중복 수록된 사례와 동일한 표지 이미지를 가진 도서가 연도별로 반복 등장한 사례를 확인한 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 활용된 도서 표지 데이터는 총 4,645건으로 확정되었으며, 전체 수집 및 입수 데이터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도서 표지 데이터 입수 현황

지정연도 주제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합
소설	19	18	18	17	17	20	18	16	15	20	29	207
에세이	20	21	17	16	20	23	21	22	23	21	30	234
한국소설	15	17	17	18	12	14	17	15	12	20	30	187
외국소설	14	19	20	20	18	16	15	15	16	15	30	198
시	14	14	16	16	12	12	9	12	10	14	29	158
아동	17	14	17	22	25	18	20	16	21	23	29	222
가정생활	12	16	9	12	11	20	16	14	16	18	29	173
인문	20	16	16	13	13	14	17	17	19	19	30	194
정치사회	19	27	20	18	19	21	24	21	23	20	29	241
경제경영	24	21	26	21	22	24	19	24	21	18	30	250
건강	21	21	20	20	17	19	19	18	19	19	30	223
과학	16	14	18	19	17	17	13	15	19	18	30	196
외국어	13	12	13	10	12	13	12	12	18	11	29	155
예술	20	19	21	16	15	16	14	21	19	17	30	208
취미/스포츠	22	18	20	19	22	19	16	18	15	16	30	215
TOEIC/TOEFL	17	18	4	8	2	5	5	4	6	0	30	99
유아	13	12	9	8	8	6	7	7	16	13	30	129
종교	17	16	14	14	17	15	15	18	15	14	30	185
요리	18	14	16	16	14	18	16	13	18	13	29	185
역사/문화	19	17	20	18	17	18	20	19	22	22	30	222
자기계발	21	21	24	18	19	24	20	19	20	16	30	232
여행	24	20	20	25	21	27	18	24	25	29	29	262
기술/컴퓨터	19	21	20	18	17	17	11	13	15	16	30	197
청소년	0	0	0	0	0	0	0	10	17	17	29	73

다만, 수집된 표지 이미지에 대해서는 문자 영역의 제거, 색상 보정, 배경 분리 등의 이미지 재구성 차원의 시각적 전처리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서 표지가 표제, 저자명, 출판사명, 이미지, 여백, 배경색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결합된 정보객체이며, 이용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도서의 시각적 이미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통합된 전체 형태로 수용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표지의 특정 요소를 분리하기보다 K 문고에서 제공하는 표지 이미지를 원형 그대로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실제

로 노출되는 표지 전체의 색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2 색채 데이터 추출 및 분석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추출에서는 도서 표지가 지닌 색채 정보를 색상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색상각은 색을 0부터 360도의 각도로 표현하는 값으로, 색상환의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낸다. 채도는 선명도를 의미하며, 명

도는 이미지의 밝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OpenCV(cv2) 패키지를 활용하여 각 표지 이미지를 HSV 색공간으로 변환한 뒤, 색상각, 채도, 명도 정보를 추출하였다. OpenCV는 이미지를 BGR 형식으로 인식하므로, 원본 이미지를 BGR 형식으로 불러온 후 HSV 색공간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무채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도와 명도 기준을 적용하여 무채색 비율을 도출함으로써, 각 도서 표지의 색채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채도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S=20, S=50, S=80 기준에서 전체 색상 분포를 비교한 결과, 채도 임계값이 높아질수록 빨강 및 주황 계열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선명한 유채색만을 분석할 경우, 난색의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표지 전체의 색채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채도 임계값을 S=20으로 설정하였다.

명도의 경우에는 검정에 해당하는 픽셀이 색상각 분석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 기준으로 V=30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색상각은 0에서 360도의 각도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키지는 0에서 179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므로, 도출된 색상각에 2를 곱하여 환산하였다. 또한 색상각은 원형자료의 특성을 지니므로, 0도와 360도 부근에 위치한 빨강 계열의 색상이 분석 과정에서 평균값이 왜곡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원형평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 2>는 HSV 색상각을 기준으로 12개의 색상 계열로 구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요하네스 이텐(Itten, 1974)의 12색상환의 개념을 참고하였으나, 실험에서 도출된 색상각을 360도로 환산한 후 30도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각 구간의 색상 계열명은 HSV 색상환에서의 색상 위치를 기준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 표지의 색채 분포를 일관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표 2> 색상환 각도에 따른 색상 계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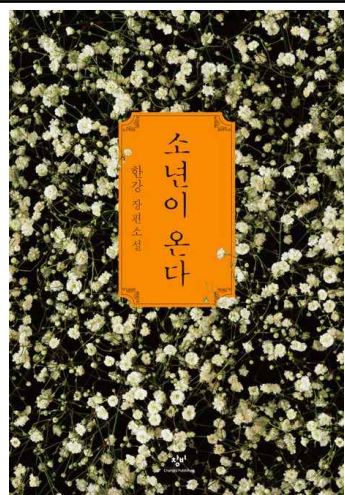
구간	각도	색상 계열
0	0-29	빨강(Red)
1	30-59	주황(Orange)
2	60-89	노랑(Yellow)
3	90-119	노랑 초록(Yellow-Green)
4	120-149	초록(Green)
5	150-179	초록 청록(Green-Cyan)
6	180-209	청록(Cyan)
7	210-239	파랑 청록(Blue-Cyan)
8	240-269	파랑(Blue)
9	270-299	파랑 보라(Blue-Violet)
10	300-329	보라(Violet)
11	330-359	빨강 보라(Red-Violet)

〈그림 2〉는 『소년이 온다』의 도서 표지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추출 사례이며, 본 표지의 무채색 비율은 0.37(37%)로 이는 도서 표지의 전체에서 37% 정도가 회색, 검은색, 흰색 계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무채색을 제외한 유채색의 평균 색상각은 50.18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2〉의 구분 기준에 따라 ‘주황’ 계열에 해당한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해당 구간의 중앙값인 45도를 대표 색상각으로 지정하였다. 유채색의 구체적인 색상 분포를 살펴보면, 1구간의 비율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2구간이 23.4%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주황’과 ‘노랑’ 대역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채색 비율이 일정 존재하므로, 실제 시각적 인상은 흰색보다 무채색 요소와 결합된 노랑에 가까운 주황의 계열의 색채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단계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앞서 추출한 색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별 평균 색상각

과 색상 구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 표지 이미지에서 추출된 평균 색상각이 주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표지 이미지에서 산출된 평균 색상각 값을 주제 간 색상 경향을 비교하기 위한 연속형 지표로 간주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별 표본 크기의 불균형과 분산의 이질성(Heterogeneity of variance)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일원분산분석 대신 Welch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등분산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Games-Howell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다중 비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1종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 Holm-Bonferroni 보정을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Python 기반의 통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제별로 도서 표지의 대표 색채 구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군집 수(k)는 6개로 고정하

	filename	무채색 비율	평균 유채색 각도	편차	대표색상 각도
	24A1	0.37	50.18	13.00	45
	색상 구간 비율	0	1	2	3
		0.0199	0.7420	0.2342	0.0019
		4	5	6	7
		0.0002	0.0000	0.0000	0.0001
		8	9	10	11
0.0002	0.0002	0.0004	0.0010		

〈그림 2〉 표지 이미지 색상 값 도출 사례(『소년이온다』, 한강 作)

였다. 유채색의 경우, 색상각을 기준으로 설정한 12 색상 구간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한 색상 구간을 5개의 유채색 군집으로 통합하였으며, 무채색 비율이 2/3 이상인 표지는 유채색 분포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채색 중심의 군집으로 별도 분리하였다. 결과적으로 5개의 유채색 군집과 1개의 무채색 군집을 합쳐 총 6개의 군집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제별 표지 색채 특성을 요약하였다.

3. 분석 결과

3.1 도서 표지 이미지 색채 분포

〈표 3〉은 주제별 도서 표지의 주요 색채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표지의 평균 색상각은 34.91도로 대부분 표지가 전반적으로 주황 계열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 구간 비율을 살펴보면 0구간이 22.5%, 1구간이 25.4%, 2구간이 4.8%로 전체 유채색의 절반 이상이 빨강, 주황, 노랑 계열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베스트셀러 도서 표지에서 따뜻한 색감을 지닌 난색 계열의 색상이 전반적으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별 평균 색상각을 살펴보면, '에세이', '건강', '외국어', 'TOEIC/TOEFL'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제가 빨강과 주황 계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소설', '시', '가정생활', '인문', '정치사회', '경제경영', '과학', '역사/문화', '자기계발', '기술/컴퓨터'는 빨강 계열로 확인되었으며, '소설', '외국소설', '아동', '예술', '취

미/스포츠', '유아', '종교', '요리', '여행', '청소년'은 주황 계열로 확인되었다. 한편, '에세이'와 '건강'은 노랑 계열, '외국어'는 노랑초록 계열, 'TOEIC/TOEFL'은 빨강보라 계열로 나타나 다른 주제와 구분되는 평균 색상각을 보였다.

24개의 주제 중 평균 색상각인 34.91도 보다 작은 색상각을 보인 '소설'은 30.42도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주황 계열에 위치하였는데, 색상각이 작아질수록 빨강 계열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설' 주제는 상대적으로 빨강 계열에 가까운 색상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외국소설', '아동', '예술', '취미/스포츠', '종교', '요리', '여행', '청소년' 주제는 평균보다 높은 주황 계열로 나타났는데, 이들 주제는 주황 계열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노랑에 근접한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밝고 따뜻한 색조가 표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색상 구간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빨강인 0구간과 주황인 1구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리' 주제는 0구간이 34.3%, 1구간이 33.8%로 빨강 및 빨강주황 계열이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요리' 주제의 표지에서 식재료, 조리 이미지, 따뜻한 식감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난색 계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 주제는 1구간이 30.1%, '종교' 주제는 1구간이 25.4%로 나타나, 이들 주제에서도 주황 빨강 계열의 색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균보다 큰 '외국어' 주제는 노랑초록 계열을 나타내는 5구간과 초록 계열의 6구간의 합산 비율이 약 32%로 나타나, 대표색상은 노랑

〈표 3〉 주제별 평균 색상각 및 색상 구간 구성

주제	구분	평균 색상구간	유채색 각도	표준 편차	색상 구간 비율(%)											무채색 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평균	주황	주황	34.91	83.24	22.5	25.4	4.8	2.3	2.4	4.9	13.1	9.1	2.5	1.7	1.7	9.4	39.4
					24.4	23.4	3.9	1.6	3.2	3.9	14.0	10.8	2.2	2.2	2.1	8.4	35.1
소설	노랑	노랑	60.84	91.29	18.2	25.6	4.2	3.8	3.5	7.1	15.8	7.4	2.1	2.1	2.1	7.6	34.0
					21.8	21.6	4.4	1.8	2.6	4.0	14.7	12.5	3.7	2.4	2.5	8.1	37.8
한국소설	빨강	빨강	45.08	90.22	24.3	23.8	3.0	3.0	5.5	4.1	13.3	10.8	2.4	1.2	1.8	6.6	35.6
					18.9	23.9	6.8	2.1	1.9	4.6	7.4	12.4	2.6	0.8	1.7	15.2	37.5
시	노랑	노랑	22.28	74.65	20.3	30.1	7.0	3.0	4.3	3.9	12.6	6.8	1.8	1.4	1.8	7.1	23.2
					23.8	29.0	3.4	1.1	1.5	6.5	11.4	5.0	1.2	3.4	2.2	11.6	36.1
아동	빨강	빨강	28.85	67.62	31.7	25.2	4.7	1.8	1.9	1.9	10.4	8.9	3.3	1.6	1.2	7.0	51.0
					28.5	18.3	3.4	1.2	1.1	4.7	13.4	11.7	2.0	0.9	1.4	12.6	59.3
가정생활	빨강	빨강	14.54	84.34	25.9	25.0	2.7	1.4	1.7	6.5	11.0	9.0	3.3	1.2	1.2	11.1	48.6
					22.0	20.9	5.2	4.4	1.8	6.5	16.3	12.5	1.4	0.8	1.3	6.9	48.9
인문	노랑	노랑	65.09	101.93	18.0	23.4	4.7	1.9	2.8	5.2	12.2	13.5	4.8	2.7	2.3	8.5	44.3
					14.0	23.3	4.4	2.7	2.4	7.5	24.5	6.6	2.3	0.9	2.9	8.5	23.4
경제경영	노랑조록	노랑조록	95.99	110.65	19.1	29.8	7.0	2.4	2.9	3.9	11.3	8.8	1.3	0.6	1.7	10.4	47.8
					25.4	29.9	5.6	1.9	2.2	3.9	9.7	6.8	2.8	0.5	1.9	9.4	37.5
과학기술	주황	주황	40.21	73.34	14.6	17.5	3.0	1.8	0.5	6.9	16.0	9.6	4.4	6.3	1.4	17.9	18.3
					21.3	22.1	6.3	4.3	2.5	3.7	18.4	6.2	1.3	1.9	1.4	10.5	24.4
취미/스포츠	주황	주황	36.59	64.76	18.5	25.4	8.6	2.4	2.2	6.4	11.6	10.3	2.7	1.3	2.4	8.2	44.9
					34.3	33.8	5.6	2.8	1.3	3.6	6.9	3.8	1.6	0.2	0.5	5.5	37.2
TOEIC/TOEFL	빨강보라	빨강보라	338.95	108.6	30.2	30.6	4.3	1.8	1.2	4.3	7.7	6.5	1.5	0.9	0.5	10.2	41.8
					25.0	29.8	3.2	1.5	1.8	4.1	11.6	10.5	4.0	1.5	0.9	5.4	46.9
유아	빨강	빨강	29.4	81.13	16.0	29.4	5.2	2.1	1.6	3.3	20.5	8.6	2.0	0.9	1.0	8.7	26.9
					21.8	20.5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중고	주황	주황	45.11	84.65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요리	빨강	빨강	36.21	48.31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역사/문화	빨강	빨강	26.58	57.63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자기개발	주황	주황	29.4	81.13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여행	빨강	빨강	53.94	81.88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기술/컴퓨터	빨강	빨강	14.89	93.57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청소년	주황	주황	53.72	101.96	16.9	25.7	4.7	2.1	4.7	3.3	15.2	12.9	3.2	1.7	2.2	7.3	22.9
					14.89	14.89	3.0	2.1	2.6	6.6	12.0	9.0	3.7	3.7	2.1	13.0	67.4

계열이나 초록 관련 계열의 비중도 일정 수준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체 표지 내 무채색 비율은 약 4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서 표지를 구성할 때, 유채색이 표지 표현에 있어 주요하게 활용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표지 내 무채색 비율이 50% 이상인 주제는 '정치사회', '기술/컴퓨터'로 이들 주제에서는 회색, 검은색, 흰색 계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표제, 부제, 도서 설명 등의 텍스트 요소가 차지하는 면적과 이를 강조하기 위해 흰색 바탕을 표지로 사용하는 등의 표지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아동', '여행', '청소년' 주제는 무채색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삽화와 그림 또는 사진 중심의 표지 구성 특성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주제별 색채 편중 경향은 기존 색채 심리학 이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요리' 주제에서 주황 계열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주황색이 지닌 식욕 증진 및 활발한 에너지의 상징성이 해당 주제의 콘텐츠 특성과 부합하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반면, '정치사회'나 '기술/컴퓨터' 주제에서 무채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무채색이 주는 '정밀함', '객관성', 그리고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전달의 명료성'을 확보하려는 디자인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분산분석

위와 같이 주제별로 표지 색상에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Welch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제 간 평균 색상각 값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3.00, 2535.34) = 17.91, p < .001$). 이는 비교 대상인 24개의 주제가 표지 색상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준의 색상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표 4>는 사후검정 결과 다수의 주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리' 주제를 중심으로, 요리와 다른 주제 간의 색상각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사후검정 결과, 전반적으로 '요리' 주제가 다수의 주제와 유의미한 색상각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앞선 기술통계 결과에서 '요리' 주제가 주황 계열에 위치하면서도, 빨강 및 주황 계열의 색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요리' 주제는 대표 색상각 수준에서 다른 주제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리'와의 색상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주제는 'TOEIC/TOEFL'로, 그 차이는 105.12로 확인되었다. 이어 '과학' 96.62, '청소년' 83.61, '외국어' 83.38 순으로 '요리'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주제가 평균 색상각 측면에서 '요리' 주제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표 3>의 기술통계 결과에서 'TOEIC/TOEFL'은 빨강보라 계열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초록 또는 파랑 계열 색상 비율의 증가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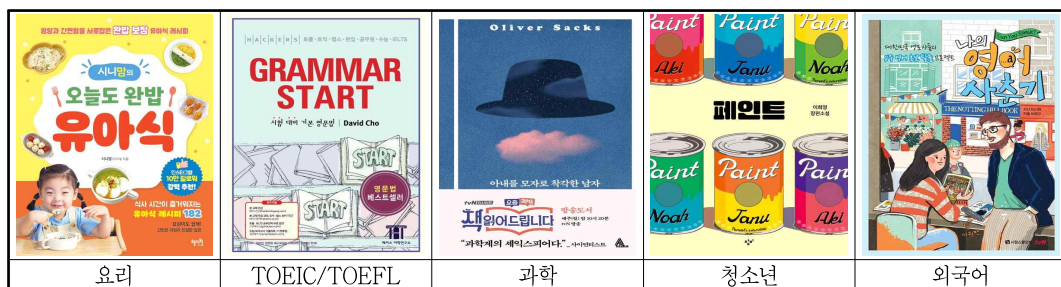
〈표 4〉 주제별 색상 비교(Games-Howell 사후검정)

주제1	주제2	색상각 차이	유의 수준
TOEIC/TOEFL	요리	105.12	〈 .001(***)
과학	요리	96.62	
청소년	요리	83.61	
외국어	요리	83.38	
기술/컴퓨터	요리	81.77	
에세이	요리	71.67	
시	요리	69.51	
정치사회	요리	68.71	
한국소설	요리	62.37	
건강	요리	61.8	
소설	요리	60.78	
경제경영	요리	60.49	
외국소설	요리	59.46	
종교	요리	55.38	
여행	요리	54.18	
예술	요리	53.32	
자기계발	요리	44.31	
유아	요리	43.11	
인문	요리	42.84	
가정생활	요리	42.22	

하기보다는, '요리' 주제의 주황 계열 중심 색상과는 다른 방향의 색상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색상각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한 표지 사례이다. '요리' 주제의 표지는 노랑, 주황, 빨강이 중심이 되는 난색

계열의 구성을 보이는 반면, 'TOEIC/TOEFL', '과학', '청소년', '외국어' 주제의 표지는 서로 다른 색상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사후검정에서 확인된 '요리' 주제와의 평균 색상각 차이가 실제 표지 이미지에서도 상이한 시각적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 색상각 차이의 표지 사례

한편 '요리'와 가장 색상각 차이가 작은 주제는 '가정생활'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인문' 및 '유아' 주제가 이후 근접한 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당 주제들이 '요리'와 동일한 색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표 3>에서와 같이 빨강이나 주황 계열의 비율이 높아, '요리'와 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색상각 차이가 주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각 주제마다의 표지 구성에서 일정한 색채적 특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도서 표지에서 색채는 단순한 심미적 요소를 넘어서 주제적 성격을 전달하는 주요한 시각적 정보 매체로 기능하며, 주제별로 도서 표지를 구성할 때 일정한 색채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3 군집 분석

<표 5>는 색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별 대표 색채를 군집화한 결과로, 도서 표지 권당 무채색 비율을 산출한 후, 무채색 비율이 66% 이상인 표지는 무채색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무채색 군집에 속하지 않는 표지는 유채색 특성에 따라 5개 유채색 군집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우선 주제별 무채색의 비중을 확인하면, 'TOEIC/TOEFL' 주제가 1.0%로 나타나 해당 주제에 속한 도서의 표지는 거의 유채색 표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아동(3.6%), 청소년(6.9%), 유아(9.3%), 여행(10.3%), 등도 무채색 군집 비중이 낮아, 해당 주제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유채색 표지의 비중이 높은 주제로 확인된다. 반면 '기술/컴퓨터' 주제는 무채색 군집 비중이 61.9%로 해당 주제

의 과반이 도서 표지가 검정, 회색, 흰색 계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정치사회(47.7%), 인문(35.1), 자기계발(31.5%) 등의 주제에서 무채색 비중이 타 주제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군집으로 분류된 표지를 제외한 유채색 표지에 대하여 주제별로 5개의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1군집부터 5군집 순으로 해당 주제에서 값이 큰 군집일수록 그 주제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색상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다수의 주제에서 빨강이나 주황 빨강계열 군집이 상위 군집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 표지에서 따뜻한 계열의 색상 사용이 관찰되는 점과 더불어 색상 구간을 군집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색상 계열 및 대역이 동일 군집으로 통합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설', '에세이', '한국소설', '외국소설', '시' 등 문학 주제에서는 1군집에서 3군집까지 고르게 빨강계열의 색상 등장하여, 주제 전반에 걸쳐 따뜻한 계열 군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나 '아동' 주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무채색 군집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아 표지 대부분이 유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아동' 주제의 경우, 주황 빨강, 주황, 빨강계열의 군집 합산 비중이 약 80.2%로 나타나 특정 색상군에 집중도가 높고 주제에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 주제 역시 1군집이 주황 빨강 계열 36.4%로 가장 높아 따뜻한 색감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초록계열의 군집(17.1%) 차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초록계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주제별 표지 색상 구성 군집 분포

군집 \ 주제	소설	에세이	한국소설	외국소설	시	아동
무채색(비중)	20.8	19.7	23.5	21.2	27.2	3.6
군집1	빨강보라(21.3)	주황빨강(23.9)	빨강보라(23.5)	초록(24.8)	주황빨강(25.3)	주황빨강(43.2)
군집2	주황빨강(18.4)	파랑초록(23.1)	빨강(17.7)	빨강(17.7)	노랑초록(21.5)	주황(23.0)
군집3	빨강(16.4)	초록(14.5)	초록(15.0)	주황빨강(16.7)	파랑초록(11.4)	빨강(14.0)
군집4	초록(13.5)	빨강(11.1)	빨강(14.4)	파랑초록(11.1)	빨강(8.9)	파랑초록(8.6)
군집5	파랑초록(9.7)	노랑초록(7.7)	파랑초록(5.9)	빨강보라(8.6)	빨강보라(5.7)	초록(7.7)
군집 \ 주제	가정생활	인문	정치사회	경제경영	건강	과학
무채색(비율)	20.2	35.1	47.7	30.4	28.3	29.1
군집1	주황빨강(27.2)	주황빨강(15.5)	빨강(12.9)	빨강보라(20.8)	주황빨강(20.6)	파랑초록(18.9)
군집2	노랑초록(23.7)	빨강(15.0)	빨강보라(12.0)	주황빨강(15.6)	빨강보라(17.0)	주황빨강(17.9)
군집3	빨강(14.5)	빨강보라(14.4)	주황빨강(10.4)	빨강(14.4)	초록(13.9)	초록(14.8)
군집4	빨강보라(7.5)	초록(11.9)	파랑초록(10.0)	파랑초록(10.0)	빨강(10.3)	빨강(14.3)
군집5	초록(6.9)	파랑초록(8.3)	초록(7.1)	초록(8.8)	파랑초록(9.9)	빨강보라(5.1)
군집 \ 주제	외국어	예술	취미스포츠	TOEIC/TOEFL	유아	종교
무채색(비율)	12.9	29.3	20.9	1.0	9.3	28.7
군집1	빨강(29.7)	빨강(23.1)	파랑초록(29.8)	파랑초록(27.3)	주황빨강(36.4)	노랑초록(21.6)
군집2	초록(20.7)	노랑초록(20.2)	주황빨강(22.8)	빨강보라(20.2)	초록(17.1)	주황빨강(19.5)
군집3	주황빨강(20.0)	초록(12.0)	빨강(12.6)	초록(17.2)	주황(13.2)	빨강(12.4)
군집4	노랑초록(10.3)	빨강(11.5)	초록(7.4)	주황빨강(17.2)	빨강(13.2)	초록(10.8)
군집5	빨강보라(6.5)	파랑초록(3.9)	빨강보라(6.5)	빨강(17.2)	빨강보라(10.9)	파랑초록(7.0)
군집 \ 주제	요리	역사문화	자기개발	여행	기술컴퓨터	청소년
무채색(비율)	23.2	25.2	31.5	10.3	61.9	6.9
군집1	주황빨강(27.0)	주황빨강(22.1)	주황빨강(19.4)	주황빨강(29.8)	초록(13.7)	주황빨강(26.0)
군집2	빨강(24.9)	빨강(8.0)	노랑초록(18.1)	초록(23.7)	주황빨강(8.6)	초록(17.8)
군집3	주황(16.2)	파랑초록(16.7)	빨강(14.2)	주황(22.5)	파랑초록(7.1)	주황(17.8)
군집4	파랑초록(4.9)	초록(9.5)	초록(10.3)	빨강(9.2)	빨강(5.1)	빨강(16.4)
군집5	초록(3.8)	빨강보라(8.6)	파랑초록(6.5)	빨강보라(4.6)	빨강보라(3.6)	파랑초록(15.1)

반면 실용 및 수험서 성격이 강한 주제에서는 파랑초록 및 초록 계열과 같이 차가운 계열 군집이 상위에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주제는 1군집이 파랑초록 계열로 27.3%로 나타났고 '취미/스포츠' 1군집은 29.8%로 확인되었다. '기술/컴퓨터' 주제는 유채색 표지 중 1군집이 초록 계열(13.7%)로 나타났으나, 해당 주제는 무채색 군집 비중

이 61.9%로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유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표지는 매우 한정적이며, 한정 범위에서도 초록 계열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주제별 전체의 평균 색상뿐만 아니라, 각 군집에서의 대표색상을 함께 고려하면, 각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색상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추후 도서를 조직 및 탐색하는 과정에서 표지 색채 정보를 시각적 메타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결론

4.1 주제별 도서 색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국내 베스트셀러 도서를 대상으로 주제별 도서 표지 색채의 특성과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시각적 메타데이터로 해석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기반으로 수집한 4,645건의 도서 표지 이미지를 분석하고, 색상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 정보를 추출하여 기술통계, Welch 분산분석, Games-Howell 사후검정 및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도서 표지는 전반적으로 주황 계열에 근접한 색상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빨강, 주황, 노랑 계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표지 전반에서 따뜻한 색감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유아 관련 주제는 유채색에 중심의 표지 색채를 구성하고 있어,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이러한 주제별 색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도서 표지 색채가 주제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시각적 단서

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요리' 주제는 주황 계열 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른 주제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TOEIC/TOEFL', '과학', '외국어', '기술/컴퓨터' 등은 '요리'와 상반된 색상 경향을 나타냈으며, '취미/스포츠', '가정생활', '아동' 등 일부 주제는 '요리' 주제와 유사한 색상 영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제 간 색채 차이가 단순한 우연적 변동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지 디자인의 색채 전략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군집 분석 결과에서도 주제별 표지 색채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용 및 수험서 성격이 강한 주제에서는 무채색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여, 표지가 주로 검정·회색·흰색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유채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초록이나 파랑 계열과 같은 비교적 차가운 색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문학 주제와 아동·유아 주제에서는 빨강 및 주황 계열의 따뜻한 색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아동과 유아 주제는 무채색 중심의 표지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표지가 유채색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주제에 따라 표지 색채 구성과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표지 색채가 단순한 미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주제별 표지 디자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시각적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주제별 표지 색채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서 표지 색채가 향후 구조화된 정보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4.2 활용 가능성과 연구의 한계

이와 같은 색채 정보는 도서 표지의 시각적 속성을 정량화한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으며, 향후 '시각적 메타데이터(visual metadata)'의 한 요소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도서 표지에서 추출된 색상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 및 색상 분포 비율은 표지의 색채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값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서지 메타데이터와 연계하여 도서의 시각적 특성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색상 구간을 기준으로 도서 표지의 색채 경향을 기술하거나, 색채 특성에 따른 도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색채 정보를 탐색 보조 요소나 추천 시스템의 부가적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주제별 색채 분포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디지털 서거나 온라인 전시 환경에서 도서 표지의 시각적 특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색채 기반 배열이나 탐색 인터페이스가 실제 이용자의 탐색 경험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현과 이용자 평가를 통해 후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서 표지 색

채는 향후 정보 탐색·추천·시각화 연구에서 보조적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분석 대상이 국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중심으로 수집된 도서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출판 시장의 모든 도서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도서 표지의 색채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표지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구성,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시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색채 외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주제 구분 역시 서점에서 제공하는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분류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별 색채 패턴은 도서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가 주제에 따라 일정한 분포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색채 정보가 표지 디자인의 한 요소에 그치지 않고, 도서의 시각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분석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도서 표지 색채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시각 정보로 다루고, 주제별 색채 차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향후 도서의 시각적 속성을 메타데이터 및 정보서비스 연구와 연결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남미현, 백진경 (2004). 책표지 디자인에서 시각적 요소가 독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문학도서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7(1), 329-338.
- 박선영 (2010). 우리나라 표지디자인 트렌드에 관한 고찰: 1990년~2008년 한국문학소설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박유나 (2009). 국내소설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안도선 (2001). 단행본 문학서적 표지디자인의 조형적 성향에 대한 연구: 1990년대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화진 (2001). 출판 표지 디자인의 특성화에 대한 연구: 1990년대말 출판 분야별 디자인 조형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Donato, C. & Adıgüzel, F. (2025). The effects of visual design on eco-labels evaluations: Guidelines for effective green advertising.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33(2), 271-288. <https://doi.org/10.1080/10696679.2024.2307889>
- Feisner, E. A. (2006). *Colour: How to Use Colour in Art and Desig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 Hurlbert, A. C. & Ling, Y. (2007). Biological components of sex differences in colour preference. *Current Biology*, 17(16), R623-R625. <https://doi.org/10.1016/j.cub.2007.06.022>
- Itten, J. (1974). *The Art of Color: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Objective Rationale of Color*. New York: Wiley.
- Jonauskaitė, D. (2024). Lithuanian conceptual colour-emotion associations in the global context of 37 nations. *Psichologija*, 70, 8-23. <https://doi.org/10.15388/Psichol.2024.70.1>
- Kress, G. & Van Leeuwen, T. (2002). Colour as a semiotic mode: Notes for a grammar of colour. *Visual Communication*, 1(3), 343-368. <https://doi.org/10.1177/147035720200100306>
- Kulishova, N. & Sajek, D. (2025). Using machine learning and generative intelligence in book cover development. *Journal of Imaging*, 11(2), 4. <https://doi.org/10.3390/jimaging11020046>
- Leenstra, L. (2023). *Covers of Lovers: A Multimodal Comparison of the Front Covers of Romance Novels in 2011 and 2021*. Master's thesis, Utrecht University, Netherlands.
- Liang, L., Abidin, S. B. Z., Shaari, N. B., Yahaya, M. F., & Jing, L. (2024). A 10 years systematic review on corporate visual identity element color impact on purchase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14(8), 3295-3344. <https://doi.org/10.6007/IJARBS/v14-i8/22536>

- Liu, C., Samsudin, M. R., & Zou, Y. (2025). The multidimensional impact of packaging design on purchase intention: a systematic hybrid review.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2(1), 1-18. <https://doi.org/10.1057/s41599-025-05122-1>
- Park, J. Y., Kim, C., Park, S., & Dio, K. (2023). Do you judge a book by its cover? Online book purchases between Japan and France.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35(10), 2345-2360. <https://doi.org/10.1108/apjml-08-2022-0669>
- Rusanen, E. (2024). Analysis of Finnish bookstagrammers' romance book cover preferences and their significance on book marketing. <https://doi.org/10.15388/Psichol.2024.70.1>
- Sare, M. (2025). Assessing the accessibility of queer romance book covers as digital thumbnails: an analysis of color contrast, colorblind safety, and typography legibility. *Book Publishing Final Research Paper*, 88. <https://archives.pdx.edu/ds/psu/44025>
- Tuan, N. N. (2025). *Translating Paratexts: A Multimodal Analysis of Vietnamese Editions of Irish Chick Li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Do sun (2001). *Study of Formative Propensity for the Cover Design of an Independent Volume in Literary Books: Focused on the Bestseller in the 1990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Hwa Jin (2001).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Cover Desig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Nam, Mihyun & Paik, Jinkyung (2004). The effect of visual factors on the reader's preference in the book cover design: Focused on the literary boo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7(1), 329-338.
- Park, Sun Young (2010). *A Study of the Trend of Book-Cover Design in Korea: in terms of Best Sellers of Korean Literature between 1990 and 2008*.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Park, Yuna (2009). *A Study on the Visual Expressive Elements of Domestic Novels' Cover Design*. Master's thesis, Kunkook University.